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지난 주에 에스라 하셨나요?** 행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귀한 경건의 훈련이 되길 축복합니다.

3.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11월 24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5. 목장 모임을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목장 / 11월 3일 주일
니카라구아 목장 / 11월 9일 토요일

6. 교우소식

김정신 권사님 뉴욕 방문 중입니다.
문중현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예배위원

안 내	조 창		김정신		
기 도	최상천(3)	최명희(10)	조은영(17)	박래석(24)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에스라 운동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행하는 교회



골로새서 2장 6-7절

- > 뿌리를 박으라
- > 세움을 받으라
- > 굳게 서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일 예 배 2024년 11월 3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면류관 벗어나서 / 찬송가 25(신) 25(구)

*성시 교독 /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주 사랑하는 자 / 찬송가 249(신) 249(구)

기도 / 최상천 장로

성경 봉독 / 마태복음 7장 15-23절, 미가 6장 6-8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찬송가 212(신) 347(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요약

1. 매년 11월이면 겨울을 준비하며 마지막 가을을 즐기는 참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며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다잡아 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2.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지요. 문제는... 어떤 열매인지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명백합니다. 더욱 심각한 다른 문제는... 창세기 3장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IL 60005
목회자: 박화신 목사/KM 김대희 전도사/EM Tel) 630.673.9207

생 명 샘 에 스 라 부 흥 운 동

기도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살아 계신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의 부흥과 개혁을 본받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의 믿음 생활을 돌아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허락하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엄습하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 찬송가 288(신) 204(구)

말씀 읽기 히브리서 11장 8-10절

1.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게 했나요(8절)?
2. 아브라함의 순종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 힘든 것이었을까요(8절)?
3.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람(소망)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10절)?

정리하기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귀하고 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절대자의 힘을 빌려 요행을 바라는 것과 동일할 수 있지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주님의 원하심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게 되고, '하라' 하시며 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믿음이기에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따라 가렵니다. 아멘!

기도 주기도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설교 요약 / 다시 찾아야 할 개혁의 근본 / 창세기 3장 1-11절

몇 주전에 저는 어떤 분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꽤 길게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저의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오래 전 '프레스디아스'라는 경건 훈련이 시카고에 유행할 때, 그곳에서 저를 만난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며 간단한 안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러곤 전화를 끊었지요. 며칠이 지난 후에... 왜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과 지금은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귀에 남아 혹시라도 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웬 식당이 그렇게 시끄러운지... 이 식당은 가지 말라고 남들에게 광고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화가 힘들었겠어요^^ 발성 아닌 발성을 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 사실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3시간 정도를 그분이 다 이야기 했어요. 저는 정말이지 듣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분의 첫 이야기는... 잘 다니던 교회를 이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거슬린 말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요. 교회를 나온 책임을 하나님께 두는 다소 용감한 믿음(?)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개인의 생각을 저에게 토해놓듯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나름 경청하며 그분의 개인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나름 몇 말씀 드리려 노력했지만 저에게 충분한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의 기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처럼 될까 봐 염려하셨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순종을 바라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복음의 가르침도 여기서 유래합니다. 창조가 하나님만의 일이듯 선과 악, 옳고 그름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물이요 선과 악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인데 어찌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선악의 기준을 말씀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보는 눈, 듣는 귀조차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발가벗은 몸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자신의 판단이 앞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피하였습니다. 세밀한 확신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의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처럼의 믿음은 인격과 삶이지요. 그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이 개혁의 근본입니다.